

최근 국가전산망시스템이 민간업체에 무단 도용되어 국민 신상정보의 대규모 유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화의 편리함만 강조한 나머지 이와 공존하고 있는 위험 또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안불감증'에 대한 근본적 성찰보다 논란의 중심이 정보기술적인 면에 치우친듯하여 안타까운 면이 있다.

현존하는 정보기술은 전산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이나 대규모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보안체계 구축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구축한 보안시설도 불법행위가 진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기술적인 면과 더불어 정보보안이란 기술로만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범죄가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범죄 없는 소위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첨단경찰과 함께 소득향상을 통한 사회 안정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하는 것처럼 정보와 사회의 선진화도 이와 같다. 최근 국보1호인 송래문이 허술한 보안체제로 인해 우리 눈앞에서 불타 사라지는 국가적 아픔을 겪은 바 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지내던 우리들은 정작 송래문이 사라지고 나서야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가치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경비체계가 인재(人災)였음을 알고 안타까워한 바가 있다. 정보보안의 문제도 송래문의 경우와 같다. 정보보안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



**불자 세상보기**

**이 종 옥**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의식개혁 없는 정보보안 없다!**

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안불감증'이라고 필자는 인식한다.

인터넷 강국답게 정보보호에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이 상당량의 디지털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들은 보유한 정보의 가치에 걸맞은 정보보호장치를 사급히 설치함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정보보안체계의 활용절차의 수립도 중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작년도 핵심기술 유출 26여건, 333억 원의 피해는 대부분 내부자에 의해 정보가 유출된 것임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상거래가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 인증이라는 '신분'에 의해 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신분'에 의한 상거래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빌미를 제공하고, 부도덕한 기업은 축적된 개인정보를 사유물처럼 취급하여 유출한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보다는 내부자 유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얼마 전 하나로텔레콤이 6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1000여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유출한 사례가 개인정보 사유화에 대한

단적인 패해일 것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더 이상 기술적 편리함을 우선하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없이 '신용'에 의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면서 불법복제 상품이 근절되어가듯 불법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근절이 해킹방지를 위한 1차적인 노력일 것이다. 즉, 은밀한 해킹은 개인 컴퓨터를 통로로 접근하며, 해킹 프로그램은 불법 소프트웨어에 생성되어 전파된다. 우리가 무심히 공짜라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때 해킹의 위험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는 클린 콘텐츠를 대가있게 유통하는 선진 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와대 정보시스템인 'e지원'을 두고 전·현직 대통령 간에 논란이 있어 화제이다. 봉하마을로 복제해간 정보를 양해를 받았네 아니네 하는 논란은 논란이전에 국가자산을 사유물화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열람권을 주장하며 e지원의 운영시스템을 복제한 것은 핵심보안요소인 시스템체계 및 접근경로가 유출된 것이기에 이슈가 여지되었던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e지원 논란은 우리나라 최상층부의 정보보안 인식을 나타내는 사례이기에 정보전문가로서는 쓸쓸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적절한 보안체계에 대한 적시의 투자와 더불어 보안에 대한 의식개혁 없이는 승레문을 잃었듯이 가까운 미래에 정보유출로 인한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술은 나의 힘**

"야, 너 정말 술 한 잔도 안 하는 거야?" 친구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응, 안 먹어." 김양은 슬며시 미소가 나왔다. 친구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까지 바로 자신의 모습이였기 때문이다. 20대 후반인 김양은 술을 잘 하는 편이었다. 김양은 술을 마셔야 평소 하지 않던 속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고 믿었다. 누구와 갈등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술 한 잔 하며 풀어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간혹 술을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답답했다. 그 친구와는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직장에서 술자리는 2차, 3차까지 이어지기 일쑤였다. 부모님은 "너 정말 그렇게 술 마시고 다녀도 되는 거니?"하며 염려했다. 김양은 의기양양하게 "이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였다. 어느 날 거액적 직원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일이 생겼다. 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대리님, 오늘 저녁 같이하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 그 사람을 취하도록 해서 속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이 일을 잘 성사시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였다.

**참선은 나의 힘**

그런데 뜻밖에도 이 대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따라주지만 할 뻔 자신은 마시지 않

**"취하지 않아도 마음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⑥9 술 보다 마음의 향기**

았다. 김양은 실망하였다. '야휴, 답답한 사람이네. 오늘 깊은 얘기 하기는 틀렸다'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에 믿음이 갔다. 김양은 자신도 모르게 역시 진지하게 일을 의논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날 때 김양이 "2차 가서 이야기해요"라고 했더니 이 대리는 "네, 2차는 제가 모실게요"하더니 웬 찻집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김양은 웃음이 나왔다. 아니, 노인들도 아니고 웬 찻집인가. 그러나 이 대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 회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저절로 자기 이야기가 나왔다. 전동차를 마시니 술은 깨는데 대화는 오히려 무르익어갔다. '참 이상하네' 김양은 생각했다. 어떻게 맨 정신으로 취한 것 같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걸까. 그날 밤 열시에 취기가 전혀 없이 일어나 어머니가 "너 오늘 늦을 거라고 했잖니?" 하며 놀라

는 표정이다. 그 후 여러 번 만나면서 이 대리가 참선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김양의 회사에도 명상모임이 있으니 한번 꼭 나가보라고 했다. 제일 솔직한 말은 "술 안 마셔도 취한 것처럼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호기심에 점심시간 명상모임에 나가보았다. 처음엔 좌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점심에 명상을 하면 이상하게 오후시간에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재미삼아 나가기 시작하여 몇 달이 흐르자 그 모임에서 하는 대화시간이 기다려졌다. 환한 대낮에 잠시나마 자신의 얘기를 하는 시간이 어느새 청량수처럼 느껴졌다. '이럴 수도 있구나. 취하지 않고도 마음을 열고 서로 믿을 수가 있구나.' 김양은 그렇게 조금씩 참선의 맛을 들여갔다. 깊이 마음을 집중하면 평화로운 기운이 온 몸을

감쌌다. 그 행복한 느낌은 아무리 취해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회식에서 술을 먹는 양이 조금씩 줄어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눈치 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김양은 취하지 않아도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술을 줄이자 무엇보다 다음날 피곤하지 않아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다.

**마음의 향기**

오늘은 모처럼 친구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런데 밤에 작성할 자료가 있어 술은 마시지 않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취하고 불 일이었다. 지금은 술을 마시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만 했다. 그러면서 문득 친구들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취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별로 아름답거나 좋아보이지 않았다.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엔 저도 그러고 지냈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마음 속 참나를 만나는 법을 몰랐거든요."

김양은 술의 힘을 빌려야만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다. 마음을 집중하고 다스려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술이 아닌 마음의 향기와 법문의 향기에 취해지고 싶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여름 수련으로 '고통' 벗자**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유가 인상 에 따른 서민경제의 곤궁이 심화되고 있다. 운송료 인상(19%)에 대한 합의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수습국면을 맞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불안하고 뒤숭숭한 가운데 장마가 시작됐다. 지난해까지의 수해 지역에 대한 복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장마를 맞는 민심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과 몇 차례의 태풍이 찾아 올 것이다.

알을 봐도 옳고 뒤를 봐도 걱정이 태산이다. 총체적 난국이란 말은 이런 상황을 위해 생겼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기름 범벅이 된 태안반도에 인간의 아름다운 단결을 심은 우리가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인(因)의 공덕 쌓기를 발원하고 사는 불자들이 아닌가?

이 여름, 호재 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은 이 여름을 맞으며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산사로 가라. 도심의 쥘쥘도 좋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을 건져 올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지금 사찰마다 여름 수련대회를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역량에 맞춰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피서는 없다. 사찰의 여름 수련회는 더위만 피하는 곳이 아니다. 세상살이가 안겨주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힘과 지혜를 줄 것이다.

**대운하 중단, 잊지도 말자**

정부가 한반도대운하 계획을 접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6월 19일 대운하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중단하고 준비단을 해체했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제공하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심어 주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정복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자연의 반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개발론자들은 언제나 개발 그 자체만 생각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간 삶의 조건보다는 개발이익과 단기적 성과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다 큰 틀 속에서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한 마을의 치수관계 사업을 하듯 쉽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지금 대운하 사업의 중단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불붙은 촛불이 가리키는 민심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정부나 국민은 지난 몇 달 대운하를 두고 엇갈렸던 생각의 고리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민심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정부의 대응방식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의 과와 실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때이다.

한바탕 잔치가 끝났다는 생각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는 얘기다. 대운하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 논란의 과정과 정부 차원의 대응과정 등을 모두 미래를 위한 거울로 남겨 놓는 지혜는 불교계나 시민단체 정부 모두의 몫이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사.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제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활동 지역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부산일원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대구일원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충북 / 충남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밀양 / 창령 / 의령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김해 / 마산 / 거제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광주 / 전남지역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전북지역	063)910-5199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영주 / 문경 / 봉화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남해/고성/사천/함양/진주	055)746-9778 / 011-870-0021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方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정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책 자 안 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라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삼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